서평

우리 시대의 또 다른 삶과 증언

—최한배 자서전, 『길』, 2011

정현백

서평

우리 시대의 또 다른 삶과 증언

최한배 자서전, 『길』, 2011

정현백
성균관대

우리가 기억하는 노동운동가 최한배는 2012년 2월 8일 이승을 하직하였다. 2월 8일 한겨레신문에 그의 자서전 『길』에 대한 소개가 실린지 단 하루 만에 그의 부음을 알리는 기사가 다시 나갔다. 만 61세, 모두가 아쉽게 작별을 고한 죽음이었다. 이 지면을 빌어 그의 책을 소개하는 것은, 그의 삶과 죽음을 공공 기억에 남기는 것이 어두웠던 시대의 무게를 함께 짊어졌던 친구들의 의무라는 생각 때문이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동기는 역사를 연구하는 필자에게 자서전 『길』이 지닌 역사학적 가치가 크게 다가왔기 때문이다.

1960년 이후 시작된 우리의 민족민주운동과 노동운동의 역사는 이제 과반세기를 넘었다. 우리 민주화운동이나 노동운동의 경험은 국제적으로 제3세계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역사적 경험으로 자리매김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우리 현대사는 일제 식민지와 좌우대립 그리고 엄혹한 군부독재 속에서 글을 남기는 것을 어렵게 하였는데, 가혹한 독재권력 아래에서 남겨진 글들은 어떤 식으로건 탄압의 빌미가 되었기 때문이었

다. 청년시절 이래 우리 세대는 기록을 남기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 그러다 보니 현대사에 대한 기록, 특히 민주화운동에 대한 기록은 성명서나 조사보고서 등의 공식적 문서 외에는 그다지 남아 있지 않다. 그래서 생존해 계신 운동가들에 대한 구술작업이나 평전이 지니는 역사적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런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지난 몇 년 사이에 이미 작고하셨거나 생존해계신 민주화운동 선구자들의 평전이 여러 권 출간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대부분 전문 작가에 의해 집필되었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각색은 불가피하였다. 이렇게 쓰인 평전은 출판사의 입장에서야 모양이 나고, 독자들이 읽기에도 감칠맛이 나겠지만, 직접 쓴 기록에 비해 사료적 가치는 떨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까닭에 필자는 주변의 어른이나 선배들에게 그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체취가 담긴 글이 절실하다는 주장을 자주 피력하였다.

최한배는 췌장암 4기 판정을 받고, 수술이나 방사선치료가 불가능해진 상태에서 7개월간 진행된 첫 번째 약물치료가 실패로 끝나는 시점부터, 『길』을 집필하기 시작했다. 다행히도 그는 이 마지막 숙제를 끝낸 후에, 자비로 출간하고, 이승을 하직했다. 최한배다운 깔끔함이었다. 이 책에는 죽음을 목전에 둔 사람으로서, 과거를 바라보는 보다 객관적이고도 성찰적인 시각이 들어 있다. 1970, 80년대에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 수기는 더러 출간되었지만, 전태일의 경우를 제외하면, 노동운동가의 자서전이 출간된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자칫 사라지기 쉬운 노동운동 속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최한배의 『길』에 주목하는 또 다른 이유는 그의 독특한 이력 때문이다. 그는 노동운동가로 15년, 기업의 경영인으로 15년, 그리고 공공부문에서 3년을 일한 이색적인 인물이다. 이런 자신의 경험을 담아 책의 끝부분에서 그는 노동운동에 대한 평가와 우리 기업의 중국진출 및 지속성장에 대한 고민, 그리고 민간기업인의 눈으로 본 공공부문을 솔직하면서도 담담하게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본가와 노동자' 문제에 대

한 그의 생각을 밝히면서, 책을 끝내고 있다. 치열한 투쟁과 처절한 희생으로 점철된 우리 노동운동의 역사에 대한 사료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지만, 국제 사회에서 한국전쟁의 폐허 위에서 산업화에 성공한 드문 사례로 언급되고 있는 한국의 기업을 분석하는 연구도 많지 않다. 이런 현실에서, 한 중소기업 경영인으로서 그가 겪은 경험은 기업사의 측면에서 소중한 자료적 가치가 있다.

최한배는 서울대 상과대학 입학과 함께 시위나 학회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그렇지만 교회에서 받은 영향이 자신을 노동운동에의 투신으로 이끌었다고 그는 술회한다(37쪽). 경동교회 강원용 목사님의 진보적이면서도 개방적인 사상에 영향을 받았고, 크리스천아카데미의 새로운 운동방식, 즉 강의와 토론, 롤 플레이, 감수성 훈련, 춤과 음악, 공동체 의식 등에서도 깊은 감성적 자극을 얻은 것 같다. 그는 경동교회 대학생부 활동의 일환으로 청계천 뚝방지역의 빈민 실태조사와 야학활동을 하였고, 이소선 여사가 운영하는 노동교실에도 참여하였고, 합법공간으로서의 교회의 역할이 중요해질 무렵 진보적인 교회 대학생부끼리 연대하여 시위활동을 벌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는 '유신독재체제와 직접 맞서는 정치투쟁보다는 이 체제의 가장 큰 희생자인 노동자의 문제에 자신을 바치기'로 결심하고, 졸업 후 3년간 다닌 코오롱주식회사의 생활을 청산하고, 1978년 노동현장으로 들어갔다.

최한배는 삼미전자 조립공, 건설현장 배관공, 경인전자, 대한제제를 거쳐, 구로공단에 소재한 대우어패럴에서 보일러공으로 근무하였고, 대우어패럴에서 노동조합 설립을 주도하였다. 그는 1986년 7월 구로동맹파업 지지시위로, 다시 1986년 서노련사건으로 구속되면서, 노동운동의 전국적 연대와 제도개선 투쟁의 전면에 나섰다. 1987년 민주화투쟁의 승리와 6·29선언이 노동운동을 공개투쟁의 장으로 나오게 하였고, 이 열정의 시기에 최한배는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사무국장과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사무처장으로 활동하면서, 노동운동의 비약적 발전

기에 크나큰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재야운동과 관련하여 그는 "국민운동본부와 전민련 사무식의 곁방살이를 하는 동안 내 눈에 비친 재야운동은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존재였다. 조직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몇몇 명망가들의 서로 다른 주장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지리한 토론으로 날밤을 새우거나 기존 정치권에 줄을 대며 개인적 출세를 넘보는 인사들도 적지 않았다. 체질적으로 맞지 않았다"고 술회하고 있다(105). 바로 이런 점이 그가 민족민주운동의 현장을 떠난 이유이다. 또한 그는 전국적인 노동조합도 건설되었고, 제조업 노동자와 사무직 간의 연대, 혹은 노동자·농민·빈민·지식인 간의 연대활동도 일정하게 진전된 점, 운동의 핵심이 소수 활동가에서 대중이 주도하는 시대로 변해가고 있는 현실도 그가 노동운동을 정리한 이유였다. 이제는 지식인 출신인 자신의 역할이 끝났다는 현실에 대한 진단과 더불어, 더 이상 운동권의 진영논리에 묶이고 싶지 않다는 그의 심경도 작용한 듯하다.

"평생을 노동자로 살며 노동자들의 친구가 되겠다는 매우 소박한 휴머니즘(113)"이 최한배의 노동운동의 출발점이었고, 그러나 노동운동의 치열한 현실 속에서 그는 사회주의자로 변모해갔고, 그리고 막연하게나마 사회주의 혁명을 꿈꾸었다고 한다. 그러나 페레스트로이카에 대한 문건을 접하면서, 그는 운동의 목표를 새롭게 설정하거나 '사고의 전면적 전환'이 필요함을 깨달았다.

최한배는 '운동에 몸 담아왔던 이들이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자유인이지만, 기업이나 행정을 운영할 기회를 가진 바가 없으니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웠고,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사회주의권의 실패도 국가경영이라는 구체적 현실에서 실패한 것'이라는 인식에 도달하였다. 그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구체적으로 생산하는 분야'에서 일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확인하고 싶었다. 결국 그는 노동운동 1세대였으나, 현장을 떠난 이후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임무현 선배의 회사, 〈대주전자재료〉에 들어

가, 중국시장을 개척하는 꿈을 실현하게 되었다.

이 짧은 지면에서 최한배가 전문경영인으로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는가를 일일이 서술할 수는 없다. 그러나 1997년 경제위기의 시련 속에서 그는 중국인들 속에 뛰어 들어, 그의 표현을 빌자면, '중국 사람들에 포위되어 생활'하면서(150쪽), 적극적인 시장개척과 기술혁신 그리고 재료의 현지공급을 통해서, 중국진출에 성공하고 전자재료 생산에서 선두를 달리는 모범사례를 만들어내었다. 특히 외국의 전자재료 업체들이 아직 중국 투자를 주저하고 있을 때에 말이다. 그는 노동운동 경험에서 얻은 노동자에 대한 이해심, 인간에 대한 신뢰, 치열한 자기성찰을 바탕으로 중국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의 기업은 중국에서 큰 이익을 남겼을 뿐 아니라 세 개의 도시로 공장을 확대하는 성공담을 만들어내었다. 최한배가 술회한 중국 진출의 성공담은 실패를 거듭하는 한국 중소기업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스토리이다. 그래서 최한배의 자서전 『길』은 기업사의 역사적 자료로서도 가치가 충분하다(170-179).

2006년 본사의 부름을 받아 대표이사로 부임하였던 최한배는 기업의 새로운 시대, 새로운 기업환경 속에서 신성장동력을 찾아내어 활력을 불어넣기에는 자신이 역부족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임무현 회장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사직하였다. 이 대목에서 삼성SDI 같은 재벌회사의 혹독한 가격인하 요구와 고압적인 태도 속에서 고통당하는 중소기업 경영인의 고뇌와 분노를 그는 절절하게 표현하였다.

이후 최한배는 오랜 노동운동의 동지인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제안에 따라, 그의 경제담당보좌관으로 잠시 근무하였다. 그에게는 노동운동과 중국에서의 사업경험을 토대로 북한의 경제개발에 일익을 담당하고 싶은 포부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보좌관 생활을 통하여 실무협상방문단으로 평양을 방문하고, 북한대학원 대학교에서 석사 논문을 쓰면서, 그는 북한개발의 기회를 찾았으나, 이는 이제 이루지 못할 꿈으로 남고 말았다.

이제 노동자와 자본가로서, 도저히 공존할 수 없다고 여기는 두 갈래 길을 걸어온 그의 마지막 증언을 경청해야 할 것 같다. 그의 책의 마지막 부분에 실린 '자본가와 노동자'의 장에서 그는 자신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언론에서는 종종 한국의 노사갈등을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소로 지적하며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 기업 차원에서 본다면 기업 흥망성쇠의 책임은 전적으로 기업가에 있다.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끌고 간 책임도 전적으로 기업가에게 있다."(217)

최한배는 '기업문화야말로 노사관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고 파악한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팽배한 억압적인 군사문화가 기업문화를 규정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렇더라도 기업문화의 형성에서 기업가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고, 마찬가지로 기업가의 경영철학과 리더십이 사업의 성패를 가른다는 것이다. 아마 임무현 회장이나 다른 경영 선배들과 생의 마지막까지 우정을 나누었던 개인적 경험도 여기에 작용하였을 것이다.

노동운동과 기업경영인 그리고 공직을 넘나든 최한배의 삶은 진영논리가 팽배한 우리 운동풍토에서 그리 큰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필자는 최한배의 자서전 『길』에서 지난 40년의 격동기를 살아온 한 지식인의 치열함과 성실성을 발견한다. 그의 책은 지난 50여 년 동안 쌓아온 민족민주운동의 도덕성과 정당성이 심각하게 도전받고 있는 지금의 현실과 우리 안에 내면화된 인습적 사고를 되돌아볼 것을 권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남는 아쉬움은 책을 통해서 그를 둘러싼 노동운동에 대한 보다 풍부한 증언과 서술이 전달되지 못한 점이다. 최한배야말로 우리 노동운동의 과거를 가장 객관적으로, 가감 없이 전달할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길』을 집필할 당시의 건강상태를 생각한다면, 남기고

간 이 책만으로도 우리는 마지막 혼신을 다한 그의 노력에 감사를 전해야 할 것이다.